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반도체주 급반등, 미국증시 주요지수 상승

- 미국증시 상승: 다우 +1.19%, 나스닥 +2.78%
- 마이크로소프트 호실적에 반도체주 급반등
- 미국 2분기 성장률 '기대 하회'..6월 PCE 물가는 '안정'

Summary

미국증시 반등

7월 30일 목요일(현지시각) 뉴욕증시는 전일의 하락을 딛고 반등에 성공. 특히 최근 시장 하락을 이끌었던 반도체주가 강하게 반등해 시장 상승을 주도했으며 전일 급등했던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된 것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반영됨. 다만 FOMC 이후 급등한 30년물 금리의 상승세가 이어졌고 중동 지역의 전선 확대 움직임도 유지되고 있어 경계 요인은 남아있음.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1.19% 상승한 52,208.06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1.66% 상승한 7,437.63에 거래를 마침. 나스닥 지수는 2.78% 상승한 25,122.18에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100지수는 3.36%까지 오름폭을 확대해 마감. 러셀2000 지수는 1.37% 상승. 변동성 지수 VIX는 17.28% 급락, 17.09에 마감.

(다우 +1.19%/ S&P500 +1.66%/ 나스닥 +2.78%/ 러셀2000 +1.37%)

마이크로소프트 호실적에 반도체주 우려 완화

이날 시장 상승의 트리거는 전거래일 마감 이후 공개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전 분기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애저를 중심으로 기대 이상의 매출과 순이익을 달성함. 핵심 사업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는 늘어나고 있는 Capex 규모를 정당화했으며 이는 곧 '담보할 수 없는 수익성'으로 인한 AI 인프라 투자 확대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는 쪽으로 작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관련주 반등의 촉매가 됐음.

이날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아마존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 매출의 5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인 AWS 매출 성장이 전분기 37%를 기록, 전체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2,000억 달러를 돌파. 수익성도 매출 성장 이상으로 개선됨. 물론 Capex 투자 규모가 확대된 영향으로 잉여현금흐름을 적자 전환했지만 투자 확대에 의한 당장의 현금흐름 악화에도 주요 사업 부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대 이상의 매출과 수익성은 향후 현금흐름 개선과 투자로 인한 미래 수익 확대에 대한 기대로 시장의 관심을 이동시킴. 컨퍼런스콜에서 추가적인 Capex 확대 계획을 언급했음에도 전일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급등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찬가지로 시간외 거래에서 10% 이상의 급등세를 연출.

한편 JP모간은 이날 최근 반도체주 급락을 이끌었던 헤지펀드들의 차입 투자 축소(디레버리징)가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면 추가적인 차입 투자 축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힘.

최근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작용했던 펀더멘털, 공급적 우려 요인이 동시에 완화되는 움직임으로, 반도체주 급락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반영했던 한국증시 역시 기술적 반등 이상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기대. KRX KOSPI 200 야간선물은 상한가(+8.00%)에 마감.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다소 부진..PCE 물가는 안정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를 공개. 헤드라인 수치는 전기대비 연율 환산 기준 1.5% 성장해 지난 1분기 성장률이자 시장 예상, 2.1%를 0.6%p 하회. 다만 세부 내용은 긍정적. 국내 민간 구매자에 대한 최종 판매가 지난 2023년 1분기 기록했던 4.6% 이후 가장 높은 3.9% 증가를 기록, 미국 경제의 핵심인 소비자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 기업 투자는 지난 1분기 10.6% 급증을 기록한 이후 2분기에도 8.4% 증가. AI 관련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는 영향으로 장비와 지식재산생산물 투자가 각각 10% 내외 급증.

연준이 주목하는 PCE 가격지수도 6월치가 공개됨. 6월 PCE 가격지수는 1년 전에 비해 3.7% 상승했으며 전달 대비로는 0.1% 하락. 에너지와 식료품 등의 변동성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도 전년 대비 3.3%, 전달 대비 0.1% 각각 상승. 대체로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이며 근원 지수의 전달 대비 상승률은 전문가 전망치를 오히려 하회. 다만 지난 6월 미국과 이란 간 휴전에 따른 유가 하락분이 반영된 지수인만큼 7월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지수 상승 가능성은 열어둬야 할 것으로 보임.

엔화 가치 급등..원화도 동조

외환시장에서는 엔화 가치의 급등이 두드러짐. 달러-엔 환율은 이날 2% 이상 급락해 160 엔을 하회했으며 장 중 158엔 부근까지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는데,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관계자를 인용해 뉴욕 오전 장 초반 일본 정부의 대규모 엔화 매수 개입이 있었다고 보도했으며 장 후반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미 재무부의 요청으로 '레이트 체크'를 실시하는 간접 개입에 나섰다는 소식도 전해짐. 일본은행(BOJ)은 오늘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음.

원화 역시 엔화 강세에 동조해 달러-원 환율 기준 낙폭을 확대함.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 종가를 1,437.40원에 형성했으나 뉴욕장 시간대 1,430원을 하향 이탈한 뒤 낙폭을 확대했으며 한국 시각 오전 6시 직전 1,418.00까지 하락,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최저치를 경신함.

특징종목

반도체주 급등의 영향으로 정보 기술 섹터(+5.24%)의 오름폭이 S&P500 전체 섹터 내에서 가장 컸고, 소비자 내구재(+1.57%), 산업재(+1.00%), 금융(+0.59%), 에너지(+0.52%)

등이 상승. 메타 플랫폼스(-7.95%) 급락의 여파로 통신 서비스(-2.52%) 섹터가 가장 크게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시장 반등에 필수소비재(-2.24%)와 헬스케어(-1.65%) 등 방어적 성격의 섹터는 하락.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르고, 메타는 내리고

이날 가장 돋보인 종목은 전거래일 마감 이후 클라우드 애저의 폭발적 성장에 힘입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15.51%).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날 하루 상승폭은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최대였으며 이날의 상승으로 시가총액은 하루만에 4,500억 달러 증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전일 마감 이후 전분기 실적을 발표한 메타 플랫폼스(-7.95%)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임. 메타 플랫폼스는 전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잉여현금흐름도 1년 사이 90% 이상 감소했다고 밝힌 가운데 시장 상승에도 낙폭을 줄이지 못한 채 거래를 마침.

이외 빅테크 관련 이슈로는 오라클(+8.34%)과 구글(-0.91%)이 전략적 협력을 확대, 제미니 모델을 오라클 퓨전 클라우드와 AI 에이전트 스튜디오 등에 통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었으며 이에 기업용 AI 애플리케이션 시장 확대 등에 대한 기대로 오라클이 상승.

다만 구글(-0.91%)은 엔트로픽의 데이터센터 단지 조성 사업에 재무 보증을 제공하고 자사 칩을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순환금융'구조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는 시각 속에 약세 마감.

마감 후: 아마존, 애플 실적

마감 이후 아마존닷컴(+3.90%)이 전분기 실적을 발표. 매출이 전년 대비 20% 성장한 2,006억 달러를 기록해 시장치였던 1,964억 달러를 웃돌았는데 특히 클라우드 AWS 매출이 전년 대비 37% 급증한 422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 405억 달러를 상회. 영업이익 역시 같은 기간 43% 성장해 시장 예상치 235억 3,000만 달러를 상회, 275억 달러로 집계됨. AWS의 영업이익률은 39.4%로 시장 예상 33.8%를 대폭 상회. 잉여현금흐름이 -76억 달러로 시장 예상보다 큰 폭 감소했지만 클라우드 중심의 압도적으로 좋은 실적에 현금 흐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져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는 10% 이상 급등.

애플(-1.41%)도 마감 이후 전분기 실적을 공개함. 애플의 회계연도 기준 3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으며 세부적으로 아이폰과 맥, 웨어러블과 홈, 액세서리 매출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지만 아이패드와 서비스 매출은 시장 예상을 하회. 지역별로는 북미 지역 매출이 시장 예상 454억 2,000만 달러를 웃돈 457억 8,000만 달러로 집계됐지만 중화권 매출이 188억 2,000만 달러로 시장 예상 195억 8,000만 달러에 미치지 못해 여전히 부진. 고마진 서비스 부문 매출, 그리고 중화권 매출 부진에 대한 실망은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짐.

코인베이스 글로벌(+2.18%)도 전분기 매출이 기대를 밑돈 영향으로 시간외 거래에서 약세

전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6거래일만에 반등

전일까지 5거래일 연속 하락, 이 기간 무려 16% 가까이 하락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은 6거래일만에 반등. 반도체주 대부분이 강하게 튀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8.36%), 샌디스크(+25.99%), 웨스턴 디지털(+15.37%), 시게이트 테크놀로지(+11.41%) 등 메모리/스토리지 관련 기업들의 오름폭이 특히 두드러짐. 샌디스크(+25.99%)는 SK하이닉스(ADR, +17.52%)와 NAND 기반의 고대역폭 플래시 메모리, HBF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이외 AMD(+13.00%), 인텔(+11.30%), 브로드컴(+4.73%), 엔비디아(+2.65%),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14.97%), 램 리서치(+17.98%), KLA(+5.96%), 델 테크놀로지스(+9.52%),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7.90%), ARM 홀딩스(+7.40%), 코닝(+9.00%), 루멘텀 홀딩스(+15.09%), 코히어런트(+12.16%), 코어워브(+21.51%), 네비우스 그룹(+27.13%), IREN(+30.54%) 등 여타 칩, 장비, 소재, 서버 제조사와 네오 클라우드 업체까지 AI 반도체 밸류체인, 그리고 관련 생태계 내 주요 종목들까지 고르게 상승.

마이크로소프트(+15.51%)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놓으며 막대한 AI 투자금의 수익화가 기업별로는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 AI 인프라 확대 내러티브 약화에 대한 경계감을 완화시켜 이날 반도체를 중심으로 AI 인프라 투자 관련 기업들의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

다만 전일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쉘컴(-2.62%)은 오후 내내 약세 구간에 머무르다 하락 마감. 쉘컴의 전분기 매출은 시장 기대를 웃돌았지만 조정 주당순이익은 시장 예상을 하회.

이외 특징주

글로벌 원격 의료 서비스 기업 텔러닥 헬스(-28.32%)가 시장 기대를 하회한 2분기 매출, 그리고 하향 조정한 연간 실적 가이드언스를 소화하며 급락.

미 정유 기업 PBF 에너지(+15.39%)는 시장 예상을 웃돈 정제마진과 현금 흐름 개선세에 급등.

글로벌 신용평가 모델 개발 기업인 페어 아이작(-17.01%)은 전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을 하회한 가운데 기대를 모았던 서비스 출시 일정이 지연됐다는 소식에 급락.

글로벌 채권 거래 플랫폼 기업 마켓엑세스 홀딩스(+29.45%)는 뉴욕증권거래소의 모회사,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ICE)가 회사를 약 5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급등. 인수 금액은 전일 종가 대비 약 33%의 프리미엄이 반영된 것으로 이날 주가는 이를 대부분 반영했으며 해당 거래는 오는 2027년 상반기 마무리 될 예정.

신발 제조사 크록스(-7.38%)는 시장 예상치를 웃돈 2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 가이드런스 상향에도 수익성이 다소 부진했고 3분기 실적 가이드런스는 예상보다 저조했다는 점을 반영해 하락.

글로벌 제약 및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콧(+2.79%)은 시장 예상을 웃돈 전분기 실적에 강세. 핵심 의약품 판매가 호조를 보인 결과라는 설명.

전일 마감 이후 소비자 재유입 등으로 기대 이상의 실적과 가이드런스를 발표한 스타벅스(+1.64%)와 치폴레 멕시코 그릴(+12.50%)이 상승.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제유가 전일 급등 후 숨고르기

국제유가는 전일의 급등 이후 숨고르기 양상을 보임.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요르단과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친이란 성향의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는 한편 사우디 역시 미군과 함께 이라크 내 친이란 세력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는 등 최근 중동 지역에서는 역내 전선 확대 움직임이 일관성있게 포착되고 있음.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사우디의 해상 교역로 입구인 홍해가 봉쇄될 위험이 불거지자 이날 사우디는 홍해에서 국제 선박과 에너지 수송로 보호를 위해 14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해상 방위 연합 창설 계획을 밝히기도 함. 다만 확대되는 전선과 그 과정에서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각국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는 별개로 국제유가는 이날 주말과 월말을 앞둔 경계감 등이 더해지며 하락 전환, 1% 대 약세로 거래를 마칩.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03% 하락한 배럴당 83.59달러에 마감했고 브렌트유 9월물도 1.88% 하락한 배럴당 89.03달러에 마감.

금가격은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상승, 온스당 1.55% 상승한 4,160달러선을 회복.

장기금리 상승 지속

전일 FOMC 이후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고금리 장기화는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영해 단기물은 하락하고 장기물은 상승했던 흐름이 간밤에도 강도를 약화했을 뿐 고스란히 이어짐.

2년물 국채 금리는 2.7bp 하락한 4.2459%를 기록했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0.4bp 하락한 4.6733%를 기록. 전일 5.20%를 돌파했던 30년물 금리는 이날도 1.3bp 추가 상승해 5.2135%를 기록.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오는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60% 초반대로 가격에 반영함.

엔화 가치 급등..달러인덱스 100 하회

달러 가치는 사흘 연속 하락. 이날은 일본 외환 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움직임 속에 엔화가 급등, 달러 가치를 끌어내림. 뉴욕 장 초반 163엔 초반대에 머물렀던 달러-엔 환율은 개장 초 대규모 매수 개입 추정 물량과 함께 160엔을 단숨에 이탈. 달러-엔 환율이 160엔대를 하회한건 지난달 15일 이후 처음. 엔화의 이 같은 초강세 움직임에 달러는 약세 폭을 확대해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0.9% 가까이 하락한 99.9를 기록, 지난달 17일 이후 처음으로 100선을 하회함.

전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에서 5개월여만에 1,430원대에 진입, 1,437.40원에 마감한 달러-원 환율도 엔화 강세에 동조해 야간 거래에서 급락, 9개월만에 1,410원대에 진입.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70원)를 고려하면 전장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12.90원 급락, 1,423.80원을 기록.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